



박기홍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대표이사/연구소장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50년 전 학회 설립 초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분자과학의 토대를 만들고 학회의 기반을 세워주신 원로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국 고분자 과학과 산업 발전은 선배 연구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위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976년 창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한국고분자학회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학문적 성장과 산업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학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 고분자 복합재료, 고분자 합성 및 물성 연구 등이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기능성 고분자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로 연구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지금은 고분자가 사용되지 않는 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역할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산업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놀랍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고분자 소재의 역할은 절대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성과에는 지난 50년 동안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연구와 열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분석·인증 현장에서 수많은 연구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대학원생, 국가연구소의 연구원,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석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다음 개발 단계로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콤포트리 또한 고분자학회의 가치에 공감하며, 2018년부터 “KOPTRI 고분자학술상”을 통해 국내 중견 과학자분들의 연구성과를 응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나라 고분자기술 발전이 학회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산업체에서 더 많은 시상과 후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50주년은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연구개발의 방식 자체를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소재 개발 분야까지 인간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새로운 소재를 실제로 제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일은 결국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통찰력과 열정, 그리고 손과 몸이 움직이는 인간의 실험과 도전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를 적극 접목한 친환경 소재, 반도체와 바이오 융합기술, 차세대 에너지 소재, 첨단 의료소재와 같은 미래 산업의 중심에도 우리 고분자학회의 여러분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가 산·학·연을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여 여러 다른 학술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임원진, 운영진,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50년이 더욱 번창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대표이사/연구소장 **박기홍**